

#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펼쳐주신 위대한 태양

산을 봐도 들을 보아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강산에 차넘치는 7월.

송업한 마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을 불러볼 때면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이 땅위에 위대한 인민사랑의 새 역사를 수놓아오신 자애로운 아버지의 인자하신 영상이 눈앞에 어려온다.

로동자들의 기름같은 손을 잡아 주시며 그들의 수고도 헤아려 주시고 농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로 의논해 주시던 아버지수령님.

학교를 찾으시어 새 교복입은 학생들을 자신의 앞에 세워 한평생 기림사진도 친히 찍어주시며 오랜 시간을 바치시었고 때로는 로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던 자애로운 모습도 인민의 마을속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한평생 인민들속에 사시었고 그들과 교락을 같이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정을 강그리 부여하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반만년민족사에 우리 인민이 그렇게도 바라던 인민사랑의 참다운 정치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 땅에 현실로 꽃피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피어린 항일투쟁의 그날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항일유격대는 인민을 떠나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옹호보위하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시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수령님 이시였기에 유격구에 처음으로 세운 정전도 인민혁명정전이고 해방 후 처음으로 발표된 법령도 땅을 가지고살아하는 농민들의 속원을 풀어준 토지개혁법령이었다.

인민과 교락을 함께 하시고 인민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는데가 바로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이었다. 그이께서 인민들과 교락을 어떻게 함께 하시였는가를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가림처럼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고사령부식당을 돌아보시고 일군들에게 인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최고사령부 일군들은 물론 나도 여기에서 레어로 될수 없다고, 지금 미제를 반대하는 전쟁을 하느라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면서 식량이 부족하여 잡곡밥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있다고,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에는 우리도 조밥



로동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체 50(1961)년 4월

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의 삼촌 김형욱선생이 최고사령부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맨 조밥에 시래기국, 김치 한보시기가 전부인 밥상을 받고 무척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의 운명이 장군께 달렸는데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밥맛 없이 무리하다가 신상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단 말인가. ...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이 미국놈들과 싸우느라 허리

머를 졸라매고있는데 우리라고 따로 백미밥을 먹어서야 되겠는가, 언제나 인민과 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하고 밤맛도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미밥을 드신다고 누가 닦하랴만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신것이다.

바로 이런분이기때문에 전후 자신의 저력도 평양시에 새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인민들의 집들이 한창

이던 주체44(1955)년말에 가서야 승진해주시였으며 그나마 집을 조선식으로 소박하게 짓도록 하시였었다.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자신의 생활준칙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셨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얼마나 휴식도 잊으시

던 주체44(1955)년말에 가서야 승진해주시였으며 그나마 집을 조선식으로 소박하게 짓도록 하시였었다.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자신의 생활준칙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셨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얼마나 휴식도 잊으시

던 주체44(1955)년말에 가서야 승진해주시였으며 그나마 집을 조선식으로 소박하게 짓도록 하시였었다.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자신의 생활준칙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셨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얼마나 휴식도 잊으시

어 손수 농작물재배시도도 진행하시어 농업을 과학화, 집약화할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내시였으며 마침내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농사방법인 주체농법을 창조하시였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 6월 은천군 금당협동농장을 찾으시어 농사를 잘 지으라고 거듭 거듭 당부하시고 7월에는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해주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 아버지수령님이시다.

진정 이인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역사가 알지 못하는 인민의 나라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아버지수령님에 의하여 이 땅위에 펼쳐진 인민사랑의 대화원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졌으며 오늘은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여 더욱 활짝 꽃피고있다.

진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도 할수 있는 엄혹한 시련의 시기이지만 공화국인민들은 주저나 동요를 모르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과연 무슨 힘이 공화국인민들로 하여금 굴할줄 모르는 열정과 패기를 안고 살며 싸워나가게 하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다.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뜨거운 사랑이다. 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며 그것을 가셔주기 위하여 온갖 조치를 다 취하여 한시바빠 가셔주는 진실하고도 뜨거운 사랑, 인민의 존엄과 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길을 앞장서 헤치는 희생적인 사랑, 온갖 심혈을 다 바쳐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고 그속에서 기쁨과 락을 찾는 헌신적인 사랑...

정정 이인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헌신분투하시신 절세위인들을 본을 이어 모시어 공화국인민들은 존엄높고 행복찬 생활을 누려오고 이 땅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세기를 이어, 년대를 이어 계속 울리고있는것이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자기들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고 위해주시는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를 모신 남다른 긍지를 안고 이 시련도 뚫고 헤쳐 가이 사회주의전진적발전을 앞당겨 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생산투쟁,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지난 5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서는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서한에서 총련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에서 전체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어 제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제일동포들의 행복찬 앞날을 따듯이 축하해주시였다고 하시었다.

그 구절을 되새겨볼수록 총련과 제일동포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인 주체83(1994)년 7월 7일 총련지부일군대회에 친히 축전을 보내시어 전체대회참가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고무를 주시던 위대한

## 제일동포들이 오늘도 전하는 사랑의 전설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이 송엄히 안겨온다.

일찌기 10대의 어린나이에 이국살이의 설움이 어떤것인가를 너무도 가슴아프게 체험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이역에서 고생하는 제일동포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친부모보다 더 뜨겁고 다심한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12월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 속에서도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공개서한 《제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었다. 그것은 목결같은 운명의 길을 걸은 제일동포모두를 새 조선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시려는 절세위인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결

정체였다.

제대미박에 남지 않았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제일동포 자녀들을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는 사랑의 전등을 마련하여주시분도, 제일동포들의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대이동의 새 령도를 펼쳐주시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총련의 년대기에는 이역의 아들딸들을 위해 배부른 아버지수령님의 향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전하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1973년 9월 공화국창건 25돌경축 제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은 조국으로 오는 길에 유럽의 한 나라를 경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변덕을 부려 때마침 추위가 들

이타했다.

그때 이곳의 날씨를 알아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나라 주재 공화국 대사관일군에게 총련축하단성원들이 감정을 떨치지 않게 잘 돌봐주라고 하시면서 겨울옷을 마련해주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게 특별비행기까지 보내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축하단은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스배인 포근한 겨울옷을 입고 이국의 광야와 산밭을 날아넘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었다.

축하단이 조국에 체류한 기간은 불과 10여일이었지만 그날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은 또 얼마나 크고 다심한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웅장화려한 평양지하철도 개통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는 제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에게 면전에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시며 일일이 손을 잡아주시었고 지하전동차에 오르시어서는 축하단성원들에게 먼저 자리를 권하시였다. 그리고 며칠후에는 그들이 든 속도 찾으시어 한가정의 단란한 분위기가 넘쳐나는 오찬회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총련축하단 성원들이 조국을 떠나기 하루전날 밤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그때도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총련축하단 동무들을 만나고 떠나자고, 이제 먼 이국땅으로 돌아갈 동무들인데 만나주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차를 돌려드록 하시었다.

1975년 가을에는 또 얼마나 감격적인 화폭이 펼쳐졌던가.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 주신 조지에 따라 해외에서 경제무역활동을 벌리고 조국으로 돌아오던 제일동포상공인들은 하루동안에 3개 나라를 경유하게

되였다.

그 일행중에 생일을 맞는 상공인이 있다는것을 아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해당 나라 주재 대표부들에서 생일상을 잘 차려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조치에 의해 하루동안에 생일상을 세번이나 받은 그 동포상공인은 일생 받은 생일상을 오늘 다 받았다고 하면서 생일상의 눈물로 웃음을 지시였다.

이 세상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 한 나라의 령도자가 평범한 해외동포상공인의 생일까지 헤아려 이토록 사려깊은 은정을 베풀어준 령가 있었던가.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제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은 진정산이나 바다에 비길수 없이 크나큰 사랑이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위대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속에서 수많은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이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를 안고 예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으며 삶의 자욱을 뚜렷이 이로써겨울수 있었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위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영원히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이역의 아들딸들은 아버지수령님그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며 제일조선인운동의 전진적발전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 한 소녀의 대답

1970년대초 제3차 북남적십자회담을 위해 평양에 왔던 남조선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한적이 있었다.

그때 만수대연대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10대의 소녀에게 한 대표단성원이 말을 걸었다.

《학생, 저 동상받침돌의 무게가 얼마나 되죠?》

소녀는 세월같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또랑 또랑하게 대답하였다.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동상받침돌의 무게는 북남 5천만민족의 심장을 합친 무게와 같습니다.》

소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오늘날도 전해지는 명답중의 명답이다.

---

### 청년대학생의 도로

1990년대중엽에 어느 한 나라의 주체사상신봉자대표단이 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주체사상함을 참관한 대표단성원들은 저저마다 아이하게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전망대에 올라 아름다운 평양시의 경관을 부감하고있었다.

이때 한 대표단성원이 전망대에 올라온 청년대학생에게 물었다.

《저, 이 주체사상탑의 높이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청년은 의미깊은 눈을 들어 대표단성원을 마주보다가 자기의 심중을 담아 대답하였다.

《세계계 인류의 리상의 높이입니다.》

의미심장한 청년의 말에 대표단성원은 런방 감탄을 터치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본사기자 리경월

